

『아리랑의 노래』 연구를 되돌아보다*

- 국경을 넘는 역사 연구를 위해 -

미즈노 나오키**

〈차 례〉

나와 『아리랑의 노래』
최초의 일본어역
이와나미 분코판 편집·간행의 경위
각국에서 출판된 『아리랑의 노래』
인명표기의 문제
단체명 등의 표기 문제
내가 쓴 ‘(다큐먼트) 김산의 발자취’
소설 「기묘한 무기」의 “발견”
「기묘한 무기」조선어역의 문제점
잡지 『신동방』에 관한 조사연구
마치며 - 앞으로의 과제

[국문초록]

1941년 미국에서 출간된 님 웨일즈·김산 공저 『아리랑의 노래』는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혁명운동에 관한 귀중한 문헌으로 일본, 한국, 중국에서 각각 여러 차례 번역되어 왔다. 필자는 1986년 이와나미 분코(岩波文庫)의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에 주석을 다는 작업을 담당했고, 그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조사, 연구해 왔다. 그런 입장에서 『아리랑의 노래』 연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거기서 보이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1953년에 나온 최초의 일본어 번역본은 재일조선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간행되었음을 밝힌다. 이어서 각국에서 나온 판본을 비교하여 등장인물이나 단체 등의 표기에 차이가 있고, 그 중에는 명백한 오류도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각기 판본이 다른 판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각

* 이 글은 2024년 11월 29일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회의 <<Song of Ariran>의 귀환>에서 행한 기조강연의 원고를 수정, 가필한 것이다.

** 교토대학 명예교수

국의 역사 인식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필자는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김산의 생애를 재구성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집필 경과와 함께 김산이 중국어로 쓴 소설 '기묘한 무기'의 발견 경위를 설명한다. 또한 이 소설이 현재 중국 조선족 문학사 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텍스트의 취급에 문제가 있다는 점 — 중국어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일본어 번역본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텍스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 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기묘한 무기'가 실린 중국 잡지 『신동방』과 조선의 민족운동, 혁명운동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 그리고 『아리랑의 노래』의 주인공 김산의 행보를 동아시아 근대사 속에 위치매김하여 고찰하는 것 등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제기한다.

[주제어] 『아리랑의 노래』, 판본 비교, 소설 『기묘한 무기』, 김산의 생애, 중국 잡지 『신동방』

『아리랑의 노래』 판본 일람

부호	출판 국가	언어	출판연도	저자	제목	출판사 (및 저작권)
A1	미국	영어	1941	Kim San and Nym Wales	<i>Song of Ariran: The Life Story of a Korean Rebel</i>	New York: The John Day Company
A2	미국	영어	1972	Nym Wales and Kim San [Foreword and notes by George O. Totten]	<i>Song of Ariran: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i>	San Francisco: Ramparts Press
A3	미국	영어	2024	Kim San and Nym Wales (Helen Foster Snow) Edited by George O. Totten III & Dongyoun Hwang [Foreword by Arif Dirlik]	<i>Song of Arirang: The Story of a Korean Revolutionary in China</i>	Los Angeles: Kaya Press ©2022, by Brigham Young University
A*	미국	영어	1961	Nym Wales	<i>Notes on Korea and the Life of Kim San</i>	Madison, Conn. ©1961, by Helen F. Snow (Nym Wales)
J1	일본	일본어	1953	ニム・ウエイلز 安藤次郎 訳	アリランの唄: ある朝鮮人革命家の生涯	朝日書房
J2	일본	일본어	1965	ニム・ウエイلز 安藤次郎 訳	アリランの歌: 一朝鮮人革命家の生涯	みすず書房
J3	일본	일본어	1987	ニム・ウェールズ, 키ム· 산 松平いを子 訳	アリランの歌: ある朝鮮人革命家の生涯	岩波書店
J*	일본	일본어	1991	李恢成·水野直樹編	アリランの歌 覚書	岩波書店
K1	한국	한국어	1946.10~ 1948.1	김산 저, 辛在敦 옮김	아리랑	『신천지』잡지연재
K2	한국	한국어	1984	넴 웨일즈,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K2-1	한국	한국어	1985	김산·넴웨일즈	아리랑의 노래	갈릴리문고사 갈릴리문고6

K2-2	한국	한국어	1986	님 웨일즈, 이태규 옮김	아리랑	언어문화사
K3	한국	한국어	1992	님웨일즈·김산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K4	한국	한국어	2005	님웨일즈·김산 송영인 옮김	아리랑	동녘
K*	한국	한국어	1986	님웨일즈, 편집실 옮김	아리랑2-김산의 생애 및 한국에 관한 보충	학민사
C1	중국, 홍콩	중국어	1977	尼姆·韋爾斯, 金山著 江山碧 譯	在中國革命隊伍裏	南粵出版社
C2	중국, 심양	한국어	1986	연변력사연구소 번역	백의동포의 영상	료녕민족출판사
C2-1	한국	한국어	1995	헤론 퍼스트 스노 부인 연변력사연구소 번역	아리랑 아라리오	세종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판)
C3	중국, 북경	중국어	1993	尼姆威尔士(海伦·斯诺), 金山 合著 赵仲强译	阿里郎之歌——中国革命中 的一个朝鲜共产党人	新华出版社

나와 『아리랑의 노래』

제가 『아리랑의 노래』에 기술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것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의 일입니다. 즉, 30~40년 전의 일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리랑의 노래』는 1960, 70년대 일본에서 아시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에게 필독서였습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행보를 기록한 에드거 스노(Edgar Snow)의 『중국의 붉은 별』, 홍군 지도자 주더(朱德)의 전기인 아그네스 스메들리(Agnes Smedley)의 『위대한 길』 등과 함께 동아시아 역사와 현상을 배우기 위한 문헌으로 손꼽히던 것이었습니다. 전전(戰前)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작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1953년 『아리랑의 노래』(J1)가 일본에서 처음 번역되었을 때,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 등이 일본에서 열심히 읽히고 있는 반면, “우리 일본인들은 조선을 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아리랑의 노래』를 읽는 일은 일본인의 새로운 의무 중 하나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의무라고 해도, 그것은 과연 재미있는가. 이야기로서 흥미로운가? 아주 재미있다. 매우 흥미롭다. 조선의 운명이 [중략] 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성장사로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미있는 것이다(中野重治『日本讀書新聞』1953년11월3日号, 『中野重治全集』第25卷、筑摩書房, 1998年, 528쪽).

저명한 작가의 이 글 외에도 『아리랑의 노래』를 언급한 글이 1950년대 이후 일본에서 발표되곤 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읽혀 왔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정중현 선생님, 조은애 선생님이 발표 해주실 텐데요, 일본의 조선인식이나 한국의 역사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197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당시 미스즈 쇼보(みすず書房) 판 『아리랑의 노래』(J2)를 읽고 충격을 받았고 주인공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사건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있었는가 하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의문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픽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잖이 있었지요. 픽션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실존 인물이라기보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몽똥그러서 적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지인(友人)도 있었고, 저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에 기술된 것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도 없었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쓰인 새로운 문헌에 의해 실존 인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속에서 조선족의 역사 연구가 활발해지며 새로 쓰인 역사서 등의 문헌을 우리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창욱 주편 《조선족혁명렬사전》 제2집(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86년)입니다. 이 가운데 김산의 생애를 담은 전기(권필 집필)가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거론된 조선족 혁명렬사는 김산을 포함해 21명이지만, 대부분의 인물이 10페이지 내외의 간단한 소개에 그친 반면, 김산

에 대해서는 43페이지에 달하는 비교적 자세한 전기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산의 본명을 ‘장명’이라고 기술하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아리랑의 노래』를 둘러싸고 이후에 밝혀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이 기본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김산의 죽음을 둘러싼 사정——연안에서 중국 공산당 변구(邊區) 보안서에 의해 처형된 것——이 밝혀졌고 1983년에는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의문으로 여겨졌던 것의 진실이 밝혀지며 큰 놀라움을 주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랑의 노래』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¹⁾.

그러던 가운데 이와나미 분코(岩波文庫)의 한 권으로서 『아리랑의 노래』(J3)가 출간되게 되었는데, 제가 역사적 사항이나 인명에 대한 주석(보주) 집필을 맡게 됐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고증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와나미 분코판은 1987년에 간행되었고 그것이 현재에도 일본에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여름에는 연변과 베이징을 방문해서, 연변의 역사연구자(박창욱, 권립, 한준광 등 여러 선생)과 베이징의 최용수 선생을 만났습니다. 연변에서는 작가 류동호 선생(필명: 劉登)도 만나 『아리랑의 노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을 둘러싼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자료

1) 김산의 경력을 역사자료에 근거해 밝히려는 작업은 1960년대 중반 재미 한국인 역사학자 서대숙에 의해 이루어졌다. 님 웨일즈가 1961년 작성한 *Note on Korea and Life of Kim San(A)*에 김산의 본명이 장지락이라고 쓴 것을 보고, 서대숙은 장지락의 이름이 적힌 일본 측 자료 ‘재호불명신인단체의 현황(在滬不逞鮮人団体の現状)’(『외사경찰보(外事警察報)』 제73호, 1927년 7월)을 바탕으로 오성륜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혁명이 김산에 대한 님 웨일즈의 서술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 김산 —나중에 님 웨일즈에 의해 장지락으로 알려진— 은 조선인들에게는 장지락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에서 조선공산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전혀 없다. 그의 혁명 활동은 중국에서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한 것이지 뛰어난 조선인 혁명가가 아니다.” (Dae-Sook Suh,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 271. 일본어 번역(金進 역) 『朝鮮共產主義運動史』, 東京, コリア評論社, 1970, 266쪽. 한국어 번역(현대사연구회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대구, 화다출판사, 1985년, 248쪽). 서대숙이 장지락의 이름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 경력을 극히 낮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후 역사 연구에서 이 서술은 거의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하던 중에 김산이 쓴 소설 「기묘한 무기」를 발견하게 되어, 1991년 작가 이회성씨와 함께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アリランの歌』覚書)(J*)을 편집·출간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수행했던 연구과제 중 하나는 『아리랑의 노래』에 관련된 것들, 혹은 거기서 도출된 문제들을 역사연구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기에 그다지 새로운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 40년 전에 이와나미 분코판 출판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나 그 후에 느낀 것 등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강연을 위해 새롭게 자료를 찾아보며 알게 된 것, 발견한 것도 있기에 그것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후의 연구발표에서는 각 나라에서 『아리랑의 노래』가 어떻게 연구되고 읽혀 왔는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될 텐데, 여기서는 일정한 나라에 얽매이지 않는 시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와 그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한 관점과 협력 관계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일본어역

먼저, 최초의 일본어 번역 간행 전후의 일에 대해 말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조사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리랑의 노래』가 일본에 알려지게 된 것은 언제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41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아리랑의 노래』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에서 읽혔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1949년 2월에 『분카효론(文化評論)』이라는 잡지가 임시특집호 <일본을 둘러싼 적색 정권>을 간행했는데, 그 중에 북한의 현황을 적은 ‘둘러쳐진 그물’이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를 바탕으로 1930년대 중국 공산

당과 조선인과의 관계가 간단히 기술되어 있었기에 194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서 읽은 사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널리즘 관계자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에 나온 종합잡지 『텐보우(展望)』에 김광지(金廣志) 「아리랑의 노래—한 조선 혁명가의 생애」가 실렸습니다. 아홉 페이지에 걸쳐서 이 책을 꽤 자세하게 소개한 글입니다. 다만 김산은 ‘金三’, 오성륜은 ‘禹センヌン’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역사연구와 이를 위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자인 김광지는 ‘중국연구소원(中国研究所員)’으로 직함이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재일조선인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1918년 전라남도 출생으로 도쿄외국어학교 지나어(支那語) 특수과에서 공부했고, 해방 이후에는 재일본조선인연맹과 조선총련에서 잡지 편집 등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의 동향에도 관심을 가진 인텔리 재일조선인입니다²⁾. 아마도 김광지를 비롯한 재일조선인 몇몇이 『아리랑의 노래』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최초의 일본어판 아사히쇼보(朝日書房) 『아리랑의 노래(アリランの唄)』(J1)의 번역자 안도 지로(安藤次郎)는 ‘역자 후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본어역은 종전 후에 바로 계획된 적이 있었으나, 미군 당국의 압박 때문에 ‘점령통치’ 동안에는 실현되지 못했고, 이제서야 이 줄역을 상재하게 됐다. 김시협(金時浹) 씨, 은무암(殷武巖) 씨 등으로부터 친절한 지도와 원조를 받았지만, 조선 사정에 서툰 역자가 저지른 오류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고유명사 등을 기술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음차 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분들의 질정을 달게 받을 작정이다(417-418쪽).

2) 1996년 사망 후, 『추도 김광지 선생(追悼金廣志先生)』(埼玉県所沢、同刊行世話人会編集・発行, 1997年)이 사가판(私家版)으로 간행되었는데, 『텐보우(展望)』에 게재된 「아리랑의 노래(アリランの歌)」도 수록되었다.

일본어 번역이 계획된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언급한 김광지의 글이 한국전쟁 발발 후 바로 쓰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패전 이후 몇 년 뒤에는 『아리랑의 노래』의 존재가 재일조선인들 사이에 알려졌고, 그 번역이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952년 5월까지 계속된 ‘점령통치’ 기간 중에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탄압으로 인해 번역이 불가능했습니다.

안도 지로는 “내가 『아리랑의 노래』를 번역한 것은 조선총련 김시협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며 조선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다. 조선해방투쟁에 대한 국제연대의 의미로 한 일이었다”고도 적고 있으니³⁾, 아사히쇼보판이 출간된 1953년 10월을 기준으로 1년이나 2년 전에 번역 의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자인 안도 지로는 1913년 중국 톈진(天津)에서 태어나서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만철조사부(滿鐵調査部)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통계학자이지만, 중국 근현대사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리랑의 노래』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자크 베르텐의 『중국은 세계를 뒤흔든다(中国は世界をゆるがす)』(上·下, 筑摩書房, 1952·53년)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었기에, 알고 지낸 조선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도는 ‘역자 후기’에서 “김시협, 은무암 씨 등으로부터 친절한 지도와 원조를 받았다”고 썼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표기나 역사적 사실의 주석에 관해서는 이 두 사람의 도움이 있었던 셈입니다.

안도에 따르면 아사히쇼보는 인쇄업을 경영하던 김시협이 『아리랑의 노래』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한 출판사로 되어 있습니다⁴⁾. 김시협은 1935년부

3) 安藤次郎「中野さんへの二つの「残念」(ミニ評論『つぶて』第25号, 1980年1月, 金沢, つぶての会). 인용 부분에 ‘조선총련’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1950년대 전반의 조직명은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이다.

4) 아사히쇼보는 1948년 伊藤憲一『日本共産党』, 伊佐一平『中国はどうなるか?』를 낸 뒤 1949년 8월 허남麒(許南麒)『詩集 朝鮮冬物語』, 1950년 11월 허남기『日本時事詩集』를 냈으니 『아리랑의 노래』를 출판하기 위해 설립된 출판사라는 것은 안도의 과장일 것이다. 『詩集 朝鮮冬物語』와 『아리랑의 노래』의 발행자가 김시협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출판물의 발행자는 가네코 게이조(金子敬三)로 되어 있다. 가네코는 이들 책을 인쇄한 아사히인쇄주식회사 사장이었으니까 김시협이 일본명이었다고 생각된다.

터 1936년에 걸쳐 도쿄의 조사이(城西)소비구매조합 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⁵⁾. 이 조합은 무산자 소비조합 중에도 큰 단체로 일본인 문필가, 학자들도 많이 가입하고 이사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김시협은 이러한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사히쇼보 사장을 지낸 후 1950년대 후반에는 도쿄 간다에서 포스터나 간판을 제작하는 공동공예사(共同工芸社)라는 회사를 경영했으며, 지요다 조선인상공협동조합(千代田朝鮮人商工協同組合)에 관여한 상공업자였음을 알 수 있는데⁶⁾, 그 후 경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은무암은 전쟁 전후 일본에서 활동한 에스페란티스트로 전전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화연맹 산하 일본 프롤레타리아-에스페란티스트 동맹(포에우)의 중심 멤버로 활동하다가 일본의 패전 후에는 재일본조선인연맹의 외무부장으로 연합국 총사령부와의 교섭 등을 담당한 사람입니다⁷⁾. 영어를 할 줄 아는 인텔리 재일조선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중국의 민족운동, 혁명 운동의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광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리랑의 노래』의 첫 번째 일본어 번역은 역자가 일본인 안도 지로였지만 재일조선인이 주도하는 형태로 출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후 1965년에 같은 안도 지로 번역의 『아리랑의 노래(アリランの歌)』

5) 日本政府内閣『官報』1935년7월10일, 303쪽, 『官報』1936년7월3일, 4쪽.城西消費購買組合十週年記念出版編纂委員會編『輝かしき今日を築くまで 組合略史』城西消費購買組合, 1937년, 67쪽.

6) 東京朝鮮人商工会編『東京朝鮮人商工便覧』1959年度版, 東京, 同商工会, 125쪽.

7) 경찰의 기록에 의하면 1933년 현재 27세로 되어 있으므로, 김산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출생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23년 1월 일본 '내지'로 건너와 도쿄의 아자부중학교 야학을 졸업하고 '덴마크 공사관 메신저'로 근무했다. 1933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송치되었지만, 기소 유예되었다. 1934년에도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昭和8年中に於ける社会運動の状況』1547-1585쪽; 『思想月報』第3号, 1934년 9월, 173쪽). 일본 패전 후 재일본조선인연맹 외무부장 외에도 『신아통신(新亞通信)』 편집장을 지냈으나 1949년 9월 프레스 코드(신문출판검열준칙) 위반으로 미 군사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오랫동안 일본에서 에스페란티스트로 활동했다. 에스페란토 동료였던 이토 사부로(伊東三郎)를 추모하는 글에서 은무암은 “그의 몇 안 되는 조선인 동지로서, 더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출신이 아닌 자로서, 흥금을 터놓고 무엇이란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였다”고 적고 있다(渋谷定輔ほか編『伊東三郎高くたかく遠くの方へ——遺稿と追憶——』東京, 土筆社, 1974년, 336쪽).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노동자 출신이 아닌 자”, 즉 에스페란토나 영어를 이해하는 지식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스즈쇼보 J2)가 간행되는데, 이 판본에서는 조선사 연구자 강덕상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사실과 인명에 관한 역자의 주석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인명 등이 올바르게 표기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미스즈쇼보판이 그 후 오랫동안 일본에서 널리 읽혔고, 또 한국, 중국 등에서의 『아리랑의 노래』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나온 『아리랑의 노래』의 판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겠습니까만, 그 전에 제가 관여한 판본으로서 1987년에 나온 이와나미 분코판 『아리랑의 노래』(J3)의 번역과 편집에 관해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나미 분코판 편집 · 간행의 경위

당시 이와나미 분코의 편집 담당자는 제 대학 동창생인 히라타 겐이치(平田賢一) 씨였습니다. 1986년경에 히라타 씨가 『아리랑의 노래』를 이와나미 분코에서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서,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나온 《조선족 혁명렬사전(2)》에 수록된 김산의 전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랑의 노래』와 그 주인공을 역사 속에 위치시켜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조선족혁명렬사전(2)》 등 중국에서 나온 조선족 역사에 대한 문헌은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서는 조선족의 역사와 현황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고베의 시민 그룹 무궁화 모임(むくげの会) 회원인 모리카와 노부아키(森川展昭) 씨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리카와 씨는 대학 등에 근무하는 연구자가 아니지만, 1980년대 중반에 거의 매년 연변에 가서 연구자와 교류하고, 관련문헌을 일본에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1984년 연변 인민출판사에서 나온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을 일본어로 번역해 『중국의 조선족(中

国の朝鮮族)』(大村益夫訳, 神戸, むくげの会刊, 1987년)으로 출간한 데는 모리카와 씨 등의 역할이 컸습니다. 나는 모리카와씨로부터 연변에서의 역사 연구 상황을 전해 들었고, 《조선족혁명렬사전(2)》 등의 간행물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의 이와나미 분코판 출판을 위한 번역은 편집자인 히라타 씨가 중국 관계의 영어 문헌을 번역하고 있던 마쓰다이라 이오코 씨(松平いを子)에게 의뢰했습니다만,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단체 등의 표기 및 주석에 대해서는 제가 고증과 교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1972년에 나온 영어판에 기초한 번역이었지만, 영어판에 달려 있는 주석 중 김산과 님 웨일즈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하고, 조지 토튼 교수의 주석은 서구 독자를 위한 것이 많았기에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인명, 단체명 등은 되도록 특정(特定)하기로 했고 새롭게 주석을 달기로 했습니다. 마쓰다이라씨의 번역 원고와 영어 원문을 읽어가면서,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인명 등을 특정하고 한자 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쓰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⁸⁾. 그래도 아직 오류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명 등의 경우에는 한자 표기를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일본어 번역으로서 완전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해설은 이전부터 『아리랑의 노래』에 관심을 기울여 온 조선근대사 연구자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가 집필했는데, 가지무라 씨에게는 제가 입수한 자료 등을 제공했습니다. 역사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번역, 편집한 이와나미 분코판 『아리랑의 노래』는 일본에서 현재까지 조선 근대사를 배우기 위한 필독서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8) 판본 일람 가운데, (A3)의 Endnotes, Biographical Notes 부분은 그 이전 각 국어판본의 주석을 바탕으로 쓰였으며, 각 Note의 근거가 된 주석 담당자의 이름이 약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이와나미 분코판의 주석 집필자는 MI=마쓰다이라 이오코로 되어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올바르게 고치자면 MN= 미즈노 나오키이다.

각국에서 출판된 『아리랑의 노래』

잘 알려져 있듯이 『아리랑의 노래』에는 영어판, 한국어판(조선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이 있고, 각 국어판으로도 몇 가지 다른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것들을 ‘판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판본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인 (A1), (J1) 등 부호를 사용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각 국어판의 여러 번역·편집본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읽은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많은 판본을 모아 왔습니다.

일람에 기재한 판본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2-1, K2-2, C2-1은 생략합니다.

1940년대 A1 K1

1950년대 J1

1960년대 J2

1970년대 A2 C1

1980년대 K2 C2 J3

1990년대 C3 K3

2000년대 K4

2020년대 A3

이처럼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관한 문헌으로 80여년에 걸쳐 각국에서 출간된 일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아리랑의 노래』는 동아시아 근현대의 역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본들이 각각 어떤 텍스트를 이용하고 번역했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주석이 달렸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용한 텍스트나 참고로 한 자료를 대부분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리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혹은 단체명과 그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적고 있는 지에 주목해 보면, 그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표기의 문제

제가 이와나미 분코판(J3)의 편집에 관여했을 때 영어로 쓰인 인명이나 단체명 등을 한자로 표기하는 것, 번역 문장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다듬는 것 등을 작업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명 등의 표기에 오류가 생기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문헌을 참고하여 정확한 한자 표기에 힘썼습니다.

다만 영어 초판본(1941년)에서 한자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님 웨일즈가 일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즉 당시 서구에서는 중국어를 표기할 때 웨이드식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웨일즈가 그것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기에 알파벳 표기를 한자로 정확히 되돌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각 판본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각국어 판본에 적혀있는 인명 등을 몇 가지 나열하고 비교해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1)과 (C1)은 완역이 아니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A1)의 텍스트에는 모스크바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살해된 변호사로 An Ping-san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인명은 각각의 판본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J1 J2	A2	C2	K2 K3 K4	J3	C3	A3
安平山	An P'yōng-san	안평산	안평산(安平山)	安秉讚	安平山	An Byeong-chan

An Ping-san을 한자로 표기할 때 安平山이라고 쓰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J1 J2)에서는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기가 중국의 조선어판(C2)과 한국의 한국어판 (K2 K3 K4)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판 (A2)에도 도입되어 安平山이 매큐-라이샤워 표기법으로 알파벳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은 안중근의 재판에서 변호를 담당하기를 청원했던 변호사 안병찬이었던 것이 (J3)을 통해 밝혀졌는데⁹⁾, (J3)이 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판본에서든 ‘안평산(安平山)’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C3)은 (J3) 간행 후에 나왔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한자로 ‘安平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텐진(天津)의 난카이(南開) 대학에 다닌 조선인 학생으로, 후에 중국 영화계에서 활약한 인물이 (A1)에서는 Kim Ye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화배우 金焯을 가리킵니다. 사실 중국어로 金을 Kim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Kim San이라는 표기에 준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J1 J2	A2	C2	K2 K3 K4	J3	C3	A3
金巖	Kim Ōm	김염	김염	金燾	金焯	Kim Yeom

(J1 J2)의 일본어 판본에서 Kim Yen을 ‘金巖’이라는 한자로 표기했기에 영어판(A2), 한국어판(K2 K3 K4)이 그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온 (C2)와 일본어 (J3)는 영화배우로 이름이 알려져 있던 金焯(金燾)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C2)는 위의 ‘안평산’에 대해서는 (J2)를 따르고 있었지만, 金焯에 관해서는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배우였기에 올바른 이름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C3)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J3)의 주석을 담당했을 때, 중국 영화사에 관한 문헌으로부터 Kim

9) (J3)의 주석에는 “안중근의 변호를 담당했다”고 쓰여 있으나, 실제로는 일본 측에 의해 거부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Yen이 ‘金鏃’라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때까지 일본어판에서 ‘金巖’라고 여겨져 온 것을 ‘金鏃’으로 고쳤습니다. 김염은 중국 영화계의 톱스타로 193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모우(滿蒙)』이라는 잡지의 1935년 10월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¹⁰⁾.

김염(金鏃)은 중국의 게리 쿠퍼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중국인에게는 흔히 않은 날카로운 면이 있는 용모를 하고 있다. 토키[유성영화]의 물결을 타고 무대에서 영화계로 진입해서 정상을 차지한 인기인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 태생이다. 오늘날에는 중국의 영화인이 되어 활약하고 있지만 국적을 따지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사변 무렵부터 항일이 일어났을 적에 원수의 국민인 김염을 추방하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 폭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들었고, 김염은 여전히 인기 스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영화 황제’로 불린 김염(본명 김덕린)의 생애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문헌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¹¹⁾.

김염과 마찬가지로 중국 판본을 통해 올바른 표기를 찾게 된 인물로 이용(李鏞)을 들 수 있습니다. 이용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준(李儁)의 아들이자 모스크바의 적군(赤軍)대학에서 공부한 군인으로 광저우 봉기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영문판 원문에 Li Yin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J1 J2)가 ‘李英’이라고 한자 표기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역사적 인물의 이름으로서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0) 日高英太郎「中国映画界の現状と満洲」『満蒙』(大連) 1935년 10月号, 240쪽. 필자인 히다카 에 이타로는 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영화평론가 이와사키 아키라(岩崎稔)의 필명으로 여겨진다. 이와사키의 회상기 『日本映画私史』(東京, 朝日新聞社, 1977年)에 의하면, 1935년 봄에 일주일 정도 상하이에 가서 중국의 영화 사정을 탐방하고, 중국 영화인과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는 당시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조선의 영화감독 전창근도 있었다고 한다(83쪽). 김염에 관해서는 전창근에게서 들었을 것이다. 이와사키 아키라의 저서 『映画の芸術』(東京, 協和書院, 1936年)에도 김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満蒙』에 게재된 것과 거의 같은 문장이다.

11) 김창석, 《중국 영화황제 김염》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1년.

J1 J2	A2	C2	K2 K3 K4	J3	C3	A3
李英	Li Ying	리용	이영	李鏞	李英	Yi Yong

영문판(A2)은 김염의 경우와 달리, (A1)의 LiYing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에서 나온 (C2)가 리용(李鏞)이라고 표기한 것은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광저우 봉기에 참여한 조선인으로 李鏞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84년에 출간된 《조선족백년사화》 제2집(심양, 료녕인민출판사)의 「광주봉기에 참가한 조선족전사들」(리정문 집필)에는 광저우 봉기에 가담한 조선인 군인으로 박영, 이용, 최석천(崔石泉 = 崔庸健) 등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단체명 등의 표기 문제

단체나 신문 명칭의 한자 표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단체 등의 명칭은 김산이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어나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여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산이 처음 상하이에 갔을 때 찾아간 조선인 단체의 명칭은 영어 원문에는 the Korean People's Associ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A2, A3도 마찬가지). 이를 한자,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J1 J2	C-2	K2	K3 K4	C3	J3
朝鮮人民會	조선민회	上海大韓人居留民團	상하이 조선인 거류민단	朝鮮人聯合會	上海大韓人居留民團

정확한 명칭은 ‘上海大韓人居留民團’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K2)가 처음에 올바르게 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은

(K3 K4)는 ‘상하이 조선인 거류민단’으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모릅니다. 또 중국에서 나온 (C2)는 김염의 경우와는 달리 일본어로 번역된 (J1 J2)의 ‘朝鮮人民會’를 이어받으면서 ‘조선민회’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이광수를 주필로 해서 간행된 신문은 영어 원문에는 the Korean Independence News라고 쓰여 있습니다(A2, A3도 마찬가지). 각 판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J1 J2	C2	K2 K3 K4	C3	J3
朝鮮獨立新報	조선독립신보	독립신문	朝鮮獨立報	獨立新聞

이 경우는 일본어판(J1 J2)에서의 표기가 (C2)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C3)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판본이 ‘독립신문’ 이라고 합니다. 이는 『독립신문』에 이광수가 관련된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체 명칭과 관련된 문제로 하나 더 꼽자면 1926년에 광저우에서 결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에서 김산은 조선, 중국, 대만, 인도차이나, 인도 등에서 광저우에 모인 각 민족 활동가들이 뭉쳐 1926년에 League of Oriental Nations를 결성했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된 단체의 명칭을 한자나 한글로 어떻게 표기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제각기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나아가 어떤 주석이 달려있는지도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J1	J2	C2	K2 K3 K4	C3	J3
東洋民族連盟	東洋民族聯盟	동양민족연맹	동방피압박민족연합	東方民族連盟	東方被壓迫民族連合會
주석 없음	1927년 난징에서 결성	1927년 남경결성 (일본역자)	1927년 남경결성 (역자)	주석 없음	1926-27년 광저우, 우한에서 결성

단체 명칭으로는 ‘東洋民族連盟’(혹은 ‘東方民族連盟’)과 ‘東方被壓迫民族連合(會)’의 두 종류가 있지만, 주석 면에서는 ‘남경 결성’과 ‘광저우·우한 결성’이라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에 언급된 단체로는 1925년에서 27년에 걸쳐 광저우와 우한에서 결성된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¹²⁾. (K2 K3 K4)가 단체명을 동방피압박민족연합이라고 하고, 그 역자 주석으로 1927년 2월에 남경에서 김규식, 유자명 등이 중국인, 인도인 등과 함께 결성했다고 쓴 것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경에서 결성되었다는 점은 『아리랑의 노래』에서의 서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표에 넣지는 않았지만, (A3)에서는 본문에서 (A1, A2)와는 달리 Oriental League of Oppressed Peoples로 표기되고 주석 부분에서 More accurately translated as the United Society of the Eastern Oppressed Peoples (Dongfan beiyapo minzu lienhehui)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동방피압박민족연합회’라는 뜻입니다. 이 조직명과 주석은 미즈노의 논문(1992)에 의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¹³⁾. 웨일즈가 쓴 영어 원문을 본문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문제는 있지만, 단체의 명칭이나 주석의 측면에서는 정확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국에서 출판된 『아리랑의 노래』는 각 나라에서의 연구 상황, 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경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위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아리랑의 노래』를 연구할 때는 1941년의 원서에 의거하면서 각 국어의 판본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안병찬, 김염, 이용의 표기에서 불

12) 내가 쓴 이와나미 분코판의 보주에서는 1926년부터 27년에 걸쳐 광저우와 우한에서 조직되었다고 했지만, 광저우의 피압박민족연합회는 1925년 7월에 결성되었기에 정정한다. 상세한 내용은 水野直樹「東方被壓迫民族連合會(1925-27)について」(狹間直樹編『中国 国民革命の研究』京都, 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 1992年)를 참조.

13) 위의 글「東方被壓迫民族連合會 (1925-27) について」

수 있듯이 한국어 판본이 (J2)의 표기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아리랑의 노래』를 역사자료로 읽는데 있어서 이러한 표기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수가 많은 한국어판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C3)는 중국의 대표적인 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이기 때문에 독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쓴 ‘(다큐먼트) 김산의 발자취’

1991년 재일조선인 작가 이회성씨와 저의 공편으로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アリランの歌』(岩波書店)(J*)이 간행되었습니다. 이회성씨 등이 편집·간행하던 잡지 『민도(民濤)』가 『아리랑의 노래』에 관련된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기 때문에 그 글들과 새로 집필한 글들을 모아 한 권의 단행본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¹⁴⁾

ニム・ウェールズ・ピルグリム (李恢成) (*)

ニム・ウェールズとの対話 (李恢成)

「朝鮮とキム・サンの生涯についての覚書」(ニム・ウェールズ)

(小説) 「奇妙な武器」(炎光 [キム・サン]) (*)

(ドキュメント) キム・サンの足跡 (水野直樹) (*)

『アリランの歌』が聴こえてくる (金贊汀) (*) [キム・サンの子高永光のインタビュー]

14) 이 목차에서 (*)가 표시된 글은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는데, 그것이 윤희동 외 옮김 《김산과 님 웨일즈 아리랑 그후》(서울, 동녘, 1993년)이다. [옮긴이: 한국어 역서에서 (*)로 표시된 글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번역 되어 있다. “1. 특별한 여행…님 웨일즈를 찾아서 (이회성)”, “2. 격동의 서른세 해…중국 대륙의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발자취 (미즈노 나오끼)”, “3. 아버지와 아들…김산의 유가족을 찾아서(김찬정, 김산의 아들 고영광 인터뷰)”, “4. 소설·기묘한 무기 (염광[김산])”]

이 책에서 제가 쓴 「(다큐멘트) 김산의 발자취」는 일본 측과 중국 측 기록 등의 역사자료와 함께, 연변 작가 류동호 선생(필명 劉登)이 중국 각지에서 관계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취재일지를 이용해 김산(장지락)의 생애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에 쓰여 있지 않은 것, 쓰여 있어도 불분명한 기술에 그쳐 있던 것을 김산 자신이 쓴 글과 김산에 대한 증언 등을 인용하여, 중국에서의 김산의 발자취, 활동을 복원한 것입니다. 김산의 활동을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중국 공산당 관계 문헌 등도 인용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류동호 선생의 취재일지였습니다.

류동호 선생은 해방 전 조선의용군에 가담해서 화북(華北) 조선혁명군사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 노전사였습니다. 류동호 「격정세월」, 류등 「관건동지를 추모하여」(《조선의용군발자취》 집필조 《중국의 광활한 대지우에서》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7년)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류 선생은 김산의 생애를 TV 드라마로 만들기 위해 그 각본을 쓸 목적으로 1984년에 3개월에 걸쳐 중국 각지를 돌며 김산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가 장명=김산(장지락)의 명예회복을 결정한 것이 1983년 1월이었으니, 이에 따라 김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일환으로 류 선생 등에 의한 TV 드라마화가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화는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류 선생이 인터뷰 내용 등을 기록하던 취재노트는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1988년에 연변을 방문해서 류 선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나미 분코판 『아리랑의 노래』를 증정했더니 류 선생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와나미 분코를 통해 세계의 고전과 명작을 읽으셨기에, 『아리랑의 노래』가 이와나미 분코로 나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류 선생이 몇 년 전에 중국 각지에서 취재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후 이와나미 서점의 히라타 겐이치 씨를 통해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에 관해서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책에 류 선생의 취재

일지를 수록하는 것을 승낙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89년에 류 선생의 「김산의 중국에서의 행적을 찾아서(金山の中国での行迹をたずねて)」라는 제목의 일본어 원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류 선생이 일본어로 쓴 원고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은 문장의 문제 등도 있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류 선생의 양해를 구하고 저의 원고에 편입하는 형태로 하기로 했습니다. 류동호 선생의 취재일지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김산의 아내 조아평 씨, 연안에서 김산을 만난 L씨(서휘), 베이징 시대의 연인 劉玲로 보이는 C여사(제숙영) 등의 증언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의 취재였다는 점에서도 류 선생의 취재일지는 매우 귀중했습니다.

제가 쓴 「김산의 발자취」에는 류동호 선생의 취재일지와 더불어, 장지락의 동향을 담은 일본 측 정보문서, 혹은 그의 활동을 기록한 중국인의 회상, 장지락 자신이 쓴 글 등을 담았습니다. 그 자료들에는 류동호 선생과 북경의 최용수 선생님한테서 제공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도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측 자료를 토대로 장지락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작업은 최근 중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학술회의에서 손만영 선생님, 고자연 선생님의 연구발표와 그에 대한 토론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소설 「기묘한 무기」의 “발견”

김산의 생애에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저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산이 중국에서 다양한 글을 쓴 것, 혹은 일본어 문헌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은 님 웨일즈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산이 쓴 글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전후의 일입니다. 1989년에 간행된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3) 북경, 민족출판사)에 수록된 「조선족의 걸출한 혁명가—장지락」(최룡수, 김덕첨 집필)에 김산이 1931년경에 쓴 시 「동지여, 싸우

자」의 일부가 조선어로 소개된 것이 최초로 보입니다¹⁵⁾.

이어서 김산의 글로 소개된 것은 제가 “발견”한 소설 「기묘한 무기」였습니다. “발견”의 단서는 님 웨일즈가 1961년 타이프 인쇄로 낸 「조선과 김산의 생애에 대한 비망록」(A*)에 적혀 있는 김산의 아래와 같은 말이었습니다¹⁶⁾.

“I wrote poetry and short stories about Wu’s escape from prison, published in Hsin Tung Fang magazine (Chinese) in 1930, in November, under the name of Ying Kuang. It was called Strange Arms or Unusual Gunns. I got \$30 for it.”

님 웨일즈의 「비망록」을 한국어로 번역한 《아리랑 2》(1986년)(K*)에는, 이 부분이 “나는 오(吳)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단편소설과 시로 썼는데, 이는 1930년 11월 인광이라는 이름으로 『신중화』지에 (중국어)로 게재됐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¹⁷⁾. 『신중화』(新中華)라는 잡지는 1910년대와 30년대에 상하이에서 간행되긴 했지만, 그것은 김산의 소설이 실린 잡지가 아닙니다.

1989년에 저는 「비망록」의 일본어 번역 원고를 체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 영어 원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Hsin Tung Fang magazine은 중국어 알파벳 표기로 널리 쓰이던 웨이드 식으로 읽으면 『신동방(新東方)』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교토대학 문학부 도서관에 이 잡지의 첫째 분이 소장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확인한 결과, 그 제1권 제4기(1930년 4월)에 炎光 「奇怪的武器」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5) 「金山」(김창호, 한준광 집필) (韓俊光主編《中國朝鮮族人物傳》延邊人民出版社, 1990年)에는 이 시의 중국어문이 인용되었다. 원문은 沈默 「一位國際共產主義戰士」中國共產黨北京市委員會《支部生活》第10號(北京, 支部生活雜誌社, 1984年, 58-59쪽)에 게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저자명이 ‘유청화(劉淸華)’로 되어 있기에, 그 단계에서는 『아리랑의 노래』의 주인공임이 알려지지 않았던 듯하다.

16) Nym Wales, *Notes on Korea and the Life of Kim San*, 1961, p.6.

17) 님 웨일즈 지음, 편집부 옮김 《아리랑 2》 서울, 학민사, 1986년, 21쪽.

조속히 중국어·중국사 연구자 카바 도요히코(蒲豊彦) 씨에게 번역을 의뢰해, 그것을 잡지 『민도(民濤)』 제10호(1990년 봄호)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한국의 잡지 《월간 다리》(1990년 1월호)에도 한국어 번역본이 실렸습니다. 《월간 다리》에 실린 것은 중국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을 한국어로 다시 옮긴 것이었습니다.

「기묘한 무기」의 일본어 번역은 1991년 5월에 간행된 이회성·미즈노 나오키 공편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岩波書店)에도 수록했습니다. 이 책은 님 웨일즈 「조선과 김산의 생애에 대한 비망록」 부분을 제외하고, 이회성, 미즈노 나오키 역음, 윤해동의 옮김 《아리랑 그후》(1993년, 서울, 동녘)으로 한국어판이 간행되었습니다.

『민도』, 《월간 다리》,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 각각에 「기묘한 무기」가 게재·수록될 때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만, 《월간 다리》에서의 해설은 조금 긴 원고가 되었습니다.

「기묘한 무기」 조선어역의 문제점

소설 「기묘한 무기」는 김산이 썼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그 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중국어로 쓴 문학작품으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는 「기묘한 무기」가 재중 조선인 혹은 중국 조선족의 문학작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에 조사해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번역상의 문제, 텍스트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설을 조선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 원문에 의거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기묘한 무기」가 중국에 소개된 것은 연변사회과학원 문학예술연구소가 편집하는 잡지 《문학과 예술》 1990년 제3호(1990년 6월)에 조선어로 게재된 것이 처음이니까, 『민도』나 《월간 다리》에 소개된 바로 뒤의 일입니다. 그후 연변대학 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해방전 소설문학편(상)》(북경, 민족출판사, 1995)에도 수록되었습니다¹⁸⁾. 후자의

단행본에는 편자의 주기로써 “단편소설 「기묘한 무기」는 작자가 직접 한어로 쓴 것을 《문학과 예술》(1990년 제3호) 편집부에서 번역한 것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월간 다리》에 실린 한국어 번역이 거의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실렸을 때 이 잡지의 편집부가 중국어 원문을 참조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출판된 중국 조선족의 문학작품을 모은 선집과 전집에 「기묘한 무기」가 수록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처음 발표된 중국어 원문에서 조선어로 번역되었는지, 또 중국어 원문을 그대로 수록한 문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필자의 조사가 미치지 못했지만, 거의 《월간 다리》에 게재된 한국어 번역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¹⁹⁾. 거기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 김산이 쓴 글을 평가하려면, 또 특히 문학작품으로서 평가하려면 역시 중국어 원문과 그에 따른 조선어로의 번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 향후 중국에서의 연구에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한 문학사 연구의 맥락에서 이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향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또 중국어 원문에서 「奇怪的武器」로 되어 있는 제목을 일본어 번역에서는 「奇妙な武器」로 하고 있고 한국, 중국에서의 조선어 번역도 일본어 번역과 같이 「기묘한 무기」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원문에서 번역했었다면 「기괴한 무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묘한 무기」의 작자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소설을 수록한 다수의 문헌이 중국과 한국에서 간행되고 있는데, 모두 작자명은 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산의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18) 한국에서 간행된 것으로는,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편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7 신채호 주요 설 최상덕 김 산의 소설》(서울, 보고사, 2007년) 등에 수록되어 있다.

19) 조선어역 가운데 「기묘한 무기」가 게재된 것이 『신동방』 제1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월간 다리》에 실린 나의 해설에 『신동방』 제1권 휘간(彙刊)의 표지(초년도에 간행된 잡지를 모은 '휘간' 표지에 '제1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의 도판이 게재되었기에, 그것을 「기묘한 무기」의 게재호로 오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산이라는 이름은 님 웨일즈가 연안에서의 인터뷰를 토대로 장지락의 반생(半生)에 관한 책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지락 자신이 새롭게 고안한 이름이며, 『아리랑의 노래』가 간행된 후에 널리 알려지게 된 이름입니다. 장지락이 「기묘한 무기」를 썼을 때는 김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기묘한 무기」의 필자명은 ‘염광’, 내지는 본명인 장지락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민도』나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에서는 필자의 이름을 ‘염광[김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염광이라는 필명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때의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손만녕, 최창록 두 선생님은 염광 혹은 여염광(黎炎光)이라는 이름으로 장지락이 집필·발표한 많은 글을 발굴하고 있습니다²⁰⁾. 오후의 손만녕 선생님의 발표에서도 새로운 지견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산이 중국어로 집필한 그 글들의 내용만으로는 필자 염광이 조선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의열단원에 의한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암살 시도와 오성륜의 탈옥을 그린 「기묘한 무기」를 통해서 필자인 염광이 장지락의 다른 이름임이 증명되었기에, 같은 염광의 이름으로 쓰인 글도 장지락이 집필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²¹⁾. 그래서 「기묘한 무기」의 작자명에 염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겨 두는 것이 연구를 진행시켜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²²⁾.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기묘한 무기」에 그려져 있는 것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에 관해 조선어 번역본이 주석을 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차이로서, 소설에 그려져 있는 다나카 기이치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 부분에서 “이것은

20) 손만녕·최창록, <장지락의 중국어 창작과 북방 좌익문화운동(1929-1930)>, 《상허학보》제 69집, 서울, 2023년, 387-402쪽.

21) 물론 문장의 논지가 공통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염광, 여염광의 베이징 거주지가 「기묘한 무기」에 기록된 곳과 일치하고 있는 것도 근거가 되고 있다.

22) 소설 원문 말미에 당시 김산의 주소로 “폐도 경산의 동쪽에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삭제한 판본이 있는 것도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1923년 상하이 황푸(黃浦) 강안에서 일어난 어떤 중대 사건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22년 3월의 일이기요, 문학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주석으로 정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민도』, 《월간 다리》, 『아리랑의 노래』 비망록에 쓴 해설에서 그렇게 썼지만 소설이 《문학과 예술》에 실렸을 때는 제 해설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설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를 독자들이 깨닫기가 어렵겠지요. 그 후 이 소설을 수록한 단행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석 혹은 해설은 실리지 않습니다.

잡지 『신동방』에 관한 조사연구

「기묘한 무기」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게재된 중국어 잡지 『신동방』의 성격이나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신동방』은 베이징에 있던 신아주서국(新亞洲書局) 편집부에 의해 1930년 1월 월간 잡지로 창간되어 같은 해 11월부터는 동방문제연구회의 편집으로 바뀌어 1933년 제4권까지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지(宗旨)’는 “동방민족의 해방에 노력한다”, “세계 인류의 평등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식민지 문제, 동아시아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반제국주의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는 잡지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에 있어서 독특한 성격의 잡지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잡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처럼 《월간 다리》에 「기묘한 무기」가 게재되었을 때 저는 그 해설을 집필했는데, 거기에 『신동방』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두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는 『신동방』의 첫 1년분 밖에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해설이 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모든 호를 열람하지는 못했기에 오류 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신동방』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잡지에는 조선 관련 논문이나 단신 등이 거의 매호마다 게재되었습니

다. 제1권(1930년)에서 주요한 것을 가려뽑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第2期 朝鮮辛泰嶽 (灣湖訊) 「朝鮮問題的真髓」 (日本『中央公論』1929年
6号訊載)

志青「日本帝國主義鉄蹄下之韓人經濟生活」 (南京『東方被压
迫民族通訊』轉載)

第3期 友竹「日本掠奪朝鮮與朝鮮獨立運動」

第4期 悵然「最近朝鮮獨立運動的真象和分析」

炎光「奇怪的武器」

第8期 君山「朝鮮農民問題」

第10期 牛山「朝鮮鋁業的現狀」

第11期「日本帝國主義支配下滿二年的朝鮮」

이 필자나 제목을 보면 『신동방』이 어떤 방향을 지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잡지 등에 실린 논문, 기사를 번역하거나 전재(轉載)하거나 해서 각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友竹’라는 필자는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조선인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君山’ 등의 필자는 동방문제연구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란을 주의깊게 펴보면, 조선내에서 발행되는 잡지 『농민』(朝鮮農民社), 『대중공론』(大衆公論社) 등의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각지의 신문 광고 가운데서 길림 용정촌(吉林龍井村) 발행 신문 『민성보(民聲報)』 광고가 나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여성(李如星)·김세용(金世鎔)저 『숫자조선연구(數字朝鮮研究)』의 중국어역 『朝鮮研究』(新亞洲書局發行)의 광고, 소개 기사도 보입니다.

논문 이외에도 운동단체 등이 발표한 성명문이 게재된 것도 『신동방』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1930년 제2기에는 조선의 광주학생운동에 관해 조선대독립당 준비회(朝鮮大獨立黨籌備會)가 낸 한자·한글이 섞인 성명문 ‘격문(檄)’이 그 중국어 번역, 영어 번역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1930년 제11기에는 동방문제연구회의 명의로 ‘경고(敬告) 조선 혁명민중’이라는 호소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조선에서 공산당과 독립당의 대립, 또한 공산당 내부, 독립당 내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식민지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고 ‘혁명적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손만녕 최창록 두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신동방』의 주관자는 김산이 지도하고 있던 중국공산당 북경시 연경(燕京)대학교 당지부나 좌익작가연맹 북방부와 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²³⁾. 또 당시 실제로 『신동방』이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잡지로 국민당의 감시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국공산당과 연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신동방』 자체가 중국공산당계 잡지였다고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광의 「기묘한 무기」가 실린 페이지의 앞 페이지에는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좌진의 추모글과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김좌진은 1920년대 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무장단체인 북로군정서를 지휘하여 간도의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싸운 적이 있으며, 1925년부터는 만주에서 신민부를 조직하고 나중에는 무정부주의 성향이 강한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립 속에서 암살당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 게재된 것은 『신동방』의 성격을 생각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또 1932년 4월 상하이에서 일본군민 집회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의 글씨와 사진을 싣고, 그에게 이를 지시한 김구를 기리기도 하고, 상하이의 프랑스조계당국이 안창호 등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글과 사진이 게재된 것은 『신동방』이 반드시 공산당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편집 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

23) 손만녕·최창록, 앞의 논문, 386쪽.

독립당 준비회(베이징의 유일독립당촉성운동 추진단체)의 격문을 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동방』은 식민지 민족문제에 대해 통일전선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잡지에 장지락의 소설이 실린 것, 그가 그런 그룹과 접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자신의 상황 인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동방』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 「기묘한 무기」뿐만 아니라 이 잡지에 실린 다른 글들을 어느 정도 모아본 적이 있으나, 『신동방』이라는 잡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고찰하려면 중국어 독해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치사나 사상사, 민중운동사 등의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사 연구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성과는 없습니다. 중국의 혁명운동 및 민중운동, 조선의 민족운동과 관련해서, 혹은 김산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중요한 잡지인 만큼, 젊은 연구자들이 꼭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며—앞으로의 과제

오늘 강연에서는 『아리랑의 노래』에 대한 연구가 어떤 경과를 거쳐 왔는지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저의 연구에 대해서는 말미에 연구 논문 목록을 달아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국에서 진행되어 온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아리랑의 노래』 텍스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의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말에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점은 널리 헤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앞으로의 조사나 연구, 또 『아리랑의 노래』의 새로운 판본 편집 등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첫째, 김산의 생애를 다양한 자료에 의해 추적하는 것, 특히 그가 쓴 글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에서의 자료 발굴에 기대하는 바입니다만, 김산의 활동을 기록한 일본 당국의 문서나 중국 당국의 문서 등도 아직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의 민족운동, 혹은 중국의 혁명운동에서 김산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산의 활동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이나 사건에 관련된 사실의 분석·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더욱 시야를 넓혀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김산의 위치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전반적인 역사연구의 진전에 의거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임하는데 있어서 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사, 연구의 경과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지금까지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가 그다지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김산 자신이 국경을 넘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사나 연구도 국경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아리랑의 노래』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각 나라, 지역에서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재일조선인, 중국조선족, 재미한국인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산 자신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아리랑의 노래』와 김산에 대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리랑의 노래』 관련 미즈노 나오키의 논문 목록

- 「黄埔軍官学校と朝鮮の民族解放運動」,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6号、1989年12月
- 「東方被压迫民族連合会（1925-27）について」, 狹間直樹編, 『中国国民革命の研究』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1992年
- 「呂運亨と中国国民革命—中国国民党第二次代表大会における演説—」,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8号、1992年
- 「ニム・ウェールズ著『アリランの歌』をめぐって」, 『朝鮮史研究会会報』第92号、1988年
- 「小説『奇妙な武器』解説」, 『民濤』第10号1990年（『월간 다리』1990年1月号に加筆・訳載）
- 「甦る『アリランの歌』の主人公」, 『図書』1995年8月号
- 「(民族運動史上の人物)韓偉健」,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1号、1984年
- 「(民族運動史上の人物)韓偉健(追補)」,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3号、1986年
- 「(民族運動史上の人物)金星淑」,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4号、1987年
- 「(民族運動史上の人物)吳成崙」,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7号、1991年
- 「(民族運動史上の人物)李鏞」,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8号、1992年
- 「(民族運動史上の人物)楊林(金勲)」, 『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10号、1994年

■ 참고문헌

(판본 일람에 적어있는 문헌들은 생략함)

박창욱 주편 《조선족혁명렬사전》 제2집, 심양, 료녕민족출판사, 1986년.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3)북경, 민족출판사, 1989년.

韓俊光主編《中国朝鮮族人物伝》延吉、延辺人民出版社、1990年.

연변대학 조선문화연구소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해방전소설문학편(상)》, 북경, 민족출판사, 1995년.

김창석 《중국 영화황제 김염》,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1년.

炎光〈奇怪的武器〉『新東方』第1卷第4期、1930年4月、北平、新亜州書局.

キム・サン(炎光)、蒲豊彦訳「奇妙な武器」、『民涛』第10号、1990年春号、東京.

김산(炎光), 서은혜 역, 〈기묘한 무기〉, 《월간 다리》 1990년 1월, 서울.

김산, 〈기묘한 무기〉, 《문학과 예술》 1990년 1월, 연길, 연변사회과학원문학예술연구소.

윤해동 외 옮김, 《김산과 님 웨일즈 아리랑 그후》, 서울, 동녘, 1993년.

손만영, 최창득, 〈장지락의 중국어 창작과 북방 좌익문화운동(1929-1930)〉, 《상허학보》 제69집, 2023년.

Dea-sook Suh,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内務省警保局『昭和8年中に於ける社会運動の状況』1934年

司法省刑事局『思想月報』第3号、1934年9月

城西消費購買組合十週年記念出版編集委員会編『輝かしき今日を築くまで 組合略史』東京、城西消費購買組合、1937年

東京朝鮮人商工会編『東京朝鮮人商工便覧』1959年度版、東京、同商工会

渋谷定輔ほか編『伊東三郎 高くたかく遠くの方へ——遺稿と追憶——』東京、土筆社、1974年

岩崎昶『日本映画私史』東京、朝日新聞社、1977年

『中野重治全集』第25卷、東京、筑摩書房、1998年

日高英太郎「中国映画界の現状と満洲」、『満蒙』(大連) 1935年10月号

金廣志「アリアンの歌—朝鮮の一革命家の生涯—」、『展望』1950年9月

安藤次郎「中野さんへの二つの「残念」」、『つぶて』第25号、1980年1月(金沢、つぶての会)

水野直樹「東方被圧迫民族連合会(1925-27)について」(狭間直樹編『中国国民革命の研究』京都、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1992年)

『アリランの歌』 研究を振り返る

—国境を越える歴史研究のために—

MIZUNO Naoki*

1941年に米国で出版されたニム・ウェールズ、キム・サンの共著『アリランの歌』は、近代東アジアの革命運動に関する貴重な文献として、日本、韓国、中国それぞれで何度か翻訳がなされてきた。筆者は、1986年に岩波文庫の1冊として刊行された同書に注釈をつける仕事を担当したほか、それに描かれている人物や事件について調査・研究をしてきた。そのような立場から『アリランの歌』研究の歩みを振り返り、そこに見られる問題点などを指摘することとする。

まず、1953年に出た最初の日本語訳は、在日朝鮮人が主導する形で刊行されたことを明らかにする。ついで、各国で出た版本を比較して、登場人物や団体などの表記に違いがあり、中には明らかな誤りも見られ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れぞれの版本が他の版本から影響を受けながらも、それぞれの国における歴史認識のありように規定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

筆者は各種の資料にもとづいてキム・サンの生涯を再構成する文章を発表したことがあるが、その執筆の経過を述べるとともに、キム・サンが中国語で書いた小説「奇妙な武器」の発見の経緯を述べる。また、この小説が現在では中国朝鮮族の文学史の中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ながら、テキストの扱いに問題があること——中国語の原文を確認しないまま、日本語訳から朝鮮語に翻訳されたテキストが使用されていること——を指摘する。

* Professor Emeritus, Kyoto University

最後に、「奇妙な武器」が掲載された中国の雑誌『新東方』と朝鮮の民族運動・革命運動との関係を考察すること、そして『アリランの歌』とその主人公キム・サンの歩みを東アジア近代史の中に位置づけて考察することなど、今後に残された課題を提起する。

主題語: 『アリランの歌』、版本比較、小説「奇妙な武器」、キム・サンの生涯、中国雑誌『新東方』